

**좌담**

**불교속의 과학, 과학속의 불교**

과학의 발전으로 인격적인 신이나 도그마에 갇힌 종교의 입지는 좁아져 가고 있지만, 불교의 심오한 진리는 갈수록 빛을 더하고 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간파한 바와 같이 불교는 과학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교는 과학과 대화하며, 과학의 올바른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부처님오신날 특집 특별좌담- '불교속의 과학, 과학속의 불교'를 마련했다.

**참석자**

- 박영준 교수(서울대 전기·컴퓨터 공학부)
- 우희중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 양형진 교수(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불교의 눈으로 과학을 조명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세 과학자가 토론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우희중, 양형진, 박영준 교수.

# 인간 삶에 얼마나 기여하나 가치 따져야

**양형진** : 오늘날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모색하고, 양자의 관계를 토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희중** : 유물론에 기반한 근대과학은 자연과 인간을 대상화하면서 발달해왔다. 그 결과 개인과 생태의 존립은 위기를 맞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를 직선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이성에 근거한 과학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과학은 이 세계를 상생·관계·연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한다. 불교와 과학을 논하는 것은 과학을 인간의 삶과 연계된 진정한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박영준** : 어느 종교나 철학도 과학을 애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과학시대이기 때문이다. 좋은 실례는 과학적인 패러다임 안에 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과학의 도움 없이 증명이 이해할 수 있게 불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형진** : 과학을 통해서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과학을 도그마화 할 위험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체계가 과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포교와 신행의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희중** : '과학적으로 입증되니까 이것이 옳다'는 식의 논리를 종교에 적용한다

면 과학의 종교성이 강조되고, 과학의 도그마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차라리 과학을 불교적으로 증명하는 편이 옳다.

**양형진** :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본격 논의해보자. 불교와 과학이 유사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희중** : 과학이 불교와 유사한 점은 인과를 따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학의 인과가 직선적인 반면 불교의 인과는 인드라마적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 혹은 방향성이 없는 총체적인 관계로 파악된다. 또 다른 점은 과학이 분석적 환원론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다. 환원론은 관계를 끊고 구성요소를 살피고, 구성요소를 미시적으로 더욱 파헤친다. 이에 반해 불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관계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다. 서양의 분석적인 환원론 방식으로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영준** :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직선적 관점이 약화되고 있다. 현대 과학이 진화되는 모습을 보면 다학문적이고 카오스적인, 직선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의 인과

## ‘분석적 환원론’ 전체 인식 한계 봉착… 불교 새 방향성 제시

### ■ 교리와 서양과학 개념, 일대일 대응해선 위험

### ■ 인과-과학은 직선적, 불교는 인드라마상으로 해석

### ■ 불교는 모든 것 부정해보고 의심하는 태도 강조

론과 유사해지지는 측면이 있다.

**양형진** : 과학이 발전하면서 불교와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넓어졌다. 불교의 세계관과 과학의 이해가 상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우희중** : 지금 시스템 공학이나, 카오스 이론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서양과학의 이성적·유물론적 사고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불교용으로 바꾸면 사(事)에 해당하는데, 불교가 다루는 일부분에 해당한다. '사'는 불교와 과학의 공통된 요소로, 불교와 과학이 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理)는 과학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불교는 과학을 포괄한다고 본다.

**박영준** : 부처님의 존재·인식론은 인과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논리적·과학적으

로 전개된다. 그렇다보니 불교 사상은 과학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 현대의 신과학 연구자들이 말하듯 불교의 존재론이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다는지, 최근의 양자론이나 과학의 체계를 미리 예측했다든지 하는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론의 도그마화를 경계한 점은 과학이 배워야 할 점이다.

**양형진** : 도그마를 불교적으로 풀면 '깨어있지 않음'이라 말할 수 있다. 불교는 모든 것에 대해 부정해보고, 의심해보는 그런 태도를 강조한다. 포퍼 같은 이는 지금 까지 당연한 것으로 믿어왔던 것이 부정당했을 때 과학이 크게 발전해왔다고 말한다. 의심하는 자세, 깨어있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우희중** : 공감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불교와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 불교적으로 재조명해 기존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 아닌가. 면역학 연구에서 불교는 도그마화에 대한 경계 이상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개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련된다. 생명이 생명체로 나타날 때 가장 큰 특징은 개체성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만의 고유성 존엄성 개체 고유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은 개체론을 연구하지 않는다. 사람을 해체해서 장기로 장기를 해체해서 세포로, 세포를 해체해서 유전자로 분석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 같은 환원적 방법은 보편원리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개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일부 과학자들은 구성요소들이 형성하는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양형진** : 불교와 과학의 대화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우희중** : 막연하게 '과학은 이런 것, 불교는 저런 것' 하는 식의 단정적 배타적인 자세는 금물이다. 과학은 과학대로, 불교는 불교대로의 언어가 있다. 영어 모르는 한국

인과 한국어 모르는 미국인이 말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울 필요 없지 않은가. 상호 보완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배타성은 부처님이 가장 우려했던 바다. 불행히도 지금 시대는 과학이 종교화 돼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이지 않으면 미신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같은 태도를 멀리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양형진** : 한국사람과 미국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언어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의사소통은 못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다. 참선만 했던 이가 과학 이야기를 듣고 '그거다!' 라고 바로 간파하는 경우를 본 다. 불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겉모습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도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박영준** : 부처님 가르침이 문제 본질에 접근하는 태도 지점을 제공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불교의 전통이 우주의 발생이나 존재의 기본적인 패턴이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측면이 있다. 교리와 서양과학 개념들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양형진** : 그런 자세에 입각해 불교와 과학의 소통 지점을 논의해보자.

**박영준** : 현대과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한다는 것이

15면으로 이어짐

대한불교조계종  
지장기도성령도량

## 고령산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주지 일문  
교무 중원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번지  
종무소 TEL 031)948-7700  
FAX 031)948-7702  
납골당 영각전 031)948-4440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한국불교태고종

## 봉원사 원각회

상임법사 마 일운 스님  
회장 노대행심(기순)  
총무 조금강심(춘옥)  
교무 박문수행(정옥)  
화주 김여래심(남순)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38번지

TEL 02)392-5808  
http://www.ilun.net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장

진실한 마음으로  
정품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 품목

- 풍기정품홍삼액(골드) 100g 60포, 30포
- 홍삼음료(맥기스)
- 홍삼원액
- 홍삼
- 인삼
- 절편삼
- 인삼사탕, 인삼제리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421번지  
TEL 054)636-2174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상 1500 - 820 - 400(mm) 가격:159,000 할인가:130,000  
1800 - 1530 - 480(mm) 가격:229,000 할인가:199,000

◆ 벤치탁자 set 1500 - 1790 - 750(mm) 가격:429,000 할인가:370,000

달라지거나 타협이 전에 없고 두꺼워 도색이나 반라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색이 죽음이 부드럽고 비 온후 비로 얼룩 수 있는 제품  
(목선, 거문, 유광, 특수유광, 합동, 광원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포항시 북구 경포동 11-1  
자주산업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www.jajuindustry.com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자주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요청

# 무상 연기 가르침 과학연구의 근간

좌담

불교속의 과학, 과학속의 불교

14면에서 계속

다. 우리가 경험에 따라 본질이라 믿는 것들은 사실 본질이 아니다. 과학은 엄청난 실험과 수학적 배경을 통해 이 같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옛 조사들은 수학적 방법을 도통 모르면서도 현대과학의 정수를 꿰뚫고 있었던 것만 같다. 수학이라는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도달한 양자역학의 결론이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본 선사들의 깨달음과 일치한다는 것은 놀랍기만 하다.

**우희중** : 무상은 연기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생명현상 자체를 관계로 바라보는 부처님 말씀이 와 닿는바 많다. 생명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체계성을 해체하고 관계를 끊은 다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물리적 반응을 봤다. 그 한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불교의 관점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불교는 가치의 측면에서 연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자본주의적 유희론에 입각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계승 프로젝트에 투입된 연구비가 얼마어마한데, 그 돈으로 제3세계 굶주린 사람을 도와준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물론 첨단과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했음에도 우리가 얻은 것은 한 두 가지 난치병에 대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되새겨볼 때, 오늘의 생명과학이 명분상으로는 아름답지만 과연 인간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양형진** : 상위구조가 하위구조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말 같다. '서까래 안에는 집이 들어 있다'는 말이 있다. 서까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떨어져 있으면 나무토막이지만, 제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있을 때는 서까래가 된다. 그렇다면 서까래라고 하는 개념이라든가 서까래라고 하는 어떤 존재자를 상징했을 때 그 안에는 이미 집이 들어와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을 분할하면 물질들로 나눠지겠지만 그 생명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 개개의 하위구조가령 심장 같은 것들은 그 자신의 변치않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전체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우희중** : 서까래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집이다. 뒤집어 말해 서까래에 집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착각할 수



박영준 교수

“ 산소 본질 측정하면 그 순간 성질 변화... 본질 유무 알수 없어 ”

있는 것은 다양한 집이 있을 수 있음을 놓치는 것이다.

서까래를 보고 집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다. 이 서까래는 일종의 집의 서까래일 수도 있고 이층집 서까래일 수도 있다. 서까래 일부분을 찾아내면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건축물에 사용될 때는 다른 집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종종 잊어버린다.

**양형진** : 그것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아(無我)다. 같은 서까래가 각각 다른 집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산소는 똑같은 산소인데, 물이 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되기도 한다. 산소원자라고 하는 그놈의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그 문제다.

산소원자가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자의 오류다. 그 원자가 산소원자를 만나면 산소가 되고, 수소와 만나면 물이 되는데, 이런 게 제법 무아(諸法無我)다.

**박영준** : 산소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학적인 방법을 따르

면 산소의 본질은 측정을 통해 파악된다. 그런데 측정을 하면 그 순간 산소분자의 성질은 변해버리고 만다. 산소의 본질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 본질을 알기 위해 산소에 빛을 비췄을 때 그에 의해 변화된 산소분자일 뿐이다.

**양형진** : 쉬은 말로 하면, 어떤 물질에 푸른 등을 비추면 푸르게 보이고, 붉은 등을 비추면 붉게 보인다는 말이겠다. 이 물질이 푸른 것인지 붉은 것인지, 더 나아가 그 본질이 뭔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푸른빛을 비출 때 그것이 내게 푸르게 나타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대상을 측정하면서, 측정 대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뿐 본질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박영준** : 과학계 느끼게 되는 것은 일정한 과정을 통하면서, 그렇게 지각하면서 살도록 짜여진 시스템 때문이다.

나는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파랑계 보이게끔 하는 시스템이 나와 자연에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체가 어우러져 나라고 하는 인연을 만들어낸 것이다. 인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희중** :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을 자명한 것 같다. 사실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게 무엇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결국 관계성에서 왔다. 나를 규정하는 물질이 몸에 있다. 내 살을 남의 조직이 거부하는 것처럼 그러한 조직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물질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부모님에게서 조직을 받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열 살 때 불일 수 있던 조직도 사십대에는 불이 못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신체의 나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변한다.

분자수준에서도 계속 변하는 것이 생명체다. 근대 생명과학이 극복해야 될 부분은 산소인데, 물이 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되기도 한다. 산소원자라고 하는 그놈의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그 문제다.

**박영준** : 문제는 지금 우 교수님의 말을 아무런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라고 할 만한 단백질이 없구나"라고 깨달아도 '나'라고 하는 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희중** : 모든 생명체는 아상을 갖고 있다. 질문에는 아상을 가진다는 것이 잘못됐다. 생각이 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없다. 나라는 게체성을 이루고 있는 상이 없다면 세상은 찰떡할 것이



우희중 교수

“ 자본축적 수단으로 전략한 과학 불교에서 미래 찾아야 ”

다. 어쩌면 아상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헛된 짓일 수도 있다. 생명체는 아상이 필요하다. 필요한 도구이기 이전에 개체를 이루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지적한 것은 고정된 상을 갖고 그에 머무르지 않는 태도다. 개체를 이루는 아상과 진정한 참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불이(不二)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양형진** : 생명현상의 전제조건은 인과를 구분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벽이 고정불변의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생명은 개체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물질대사를 해야만 한다. 안과 밖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하지만,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고정된 안과 밖은 없다. 여기에 종교적인 관점을 도입하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안과 밖이 존재하면서도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는 생명체의 특성은 어느 한 편에 치우친 사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종교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아상은 생존의 장치로서 필요한 것 같다. 원시적인 생명체 또는 하등동물의 경우에도 매순간 죽느냐 사느냐 판단해야 한다. 내가 살 수 있나, 저 대상을 내가 먹을 수 있

나, 나와 교배할 수 있나 등을 판단하지 못하면 생명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구다. 그것을 인간에 적용할 때, 아상이 극대화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상은 극대화하면서 동물세계에는 있지도 않은 욕심이 심화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경우에 대한 치유책인 것 같다.

**양형진** : 과학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학을 연구하는 인간이 과학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희중** : 과학 자체의 발전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과학이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욕망의 구조로서 발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는 인간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 깨어있는 자세로 욕망의 문제를 인지하고, 연구에 이해가 한다.

**양형진** : 과학의 발전이 종성의 삶과 행복에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영준** : 자본주의에는 자본을 재창출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고, 우리 그 안에 있다.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탈진치 위에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시스템을 추동하는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는 분명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다.

**우희중** : 불교와 과학이 만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한 행복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상의 삶이 절대적 행복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는 이 시대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보면 어떨까. 요즘 정치생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속성을 가진 사회의 틀을 바꿔보자.

우리 생명체 자체는 탐진치로 구성됐다.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마시고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관계성이다. 탐진치는 사회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 할 수 없다. 탐진치가 문제되는 것은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 타인을 대상화하고 착취할 때다. 불교는 그에 대한 개선책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는 잉여가치를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남을 대상화하는, 자본주의 바탕을 이루는 욕망을 성찰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승가 공동체는 하나의 대안적 형태로 고려해 볼지하다. 그런 이념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양형진** :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우



양형진 교수

“ 생명 분할하면 물질들로 나눠지나 생명체 이해 못해 ”

리 사회에 대해서 근원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말이다. 과학과 불교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우희중** : 지금까지 과학은 자본주의의 수단으로 오히려 자연과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내가 어우러지는 연기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은 불교적 세계관을 도입해야만 새로운 과학으로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박영준** : 불교는 역사적으로 과학과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던 전통이 있다. 불교는 과학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치관으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진** : 세계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논의가 더욱 발전해 모든 중생이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정리=남동우·박익순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봉

##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

축

**CD 성명학**

**저자** : 소리 이부길  
**도서형태** : 신국판/ 391쪽/ 고급양장  
**가격** : CD포함 값 20,000원.

동양의 지혜와 컴퓨터의 만남!!  
복잡한 수리와 음양오행학이 얽힌  
성명학의 진수를 CD로 맞는다!!

이름의 파장은 인체에 깊은 영향을 준다. 이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성명학이 어려워 제대로 된 이름을 구별 못했던 어려움을 문명의 총아 컴퓨터가 해결하였다. 좋은 소리는 귀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소리의 울림은 오장육부를 울리고 사람의 모든 감각기관을 울려서 화평하게 하기도 하고 전율에 떨기도 한다. 옛날 이름은 韜(鎧)라고 하여 무르지 못하게 하였지만, 오즈음은 대통령의 이름도 부르는 세상이 되었다. 그만큼 발음의 영향이 더욱 커진 셈이다.

누구나  
성명학을 배울 필요없이 이름을 짓고 감정할 수 있다.

**태을천문도 보급판 출시**

**고급형(120,000원) / 보급판(60,000원)**  
 찬상열차분아지도, 태을천문도, 28수를 우리나라에 배당한 지도, 휴대용 동서양 비교천문도, 태을천문도 한글판, 예설서.

**저자** : 윤상철, 2005년 5월 출시

고구려시대의 천문도를 조선시대 태조의 명으로 권근이 수정노란 「천상열차분아지도」 세월의 풍우에 사달려 갈마보기 힘들게 마모된 것을 고증을 통해 수정 보완하고 서예가 김홍구님의 필적으로 다시 재탄하였는데, 안의 내용은 레설서에 도면과 더불어 번역하였다.

부록1(50x50cm)  
동서양 비교 천문도

부록2(21x30cm)  
28수와 우리나라

부록3(50x50cm)  
태을천문도 한글판

**하락리수 CD**

**\* 가격 3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4년 3월 중보.

생년월일서를 입력 하지마져 시주 간지와 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점평결과 주역점, 궁합 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품어입니다.

주역신기묘산

**편저자** : 건원 윤상철  
**도서형태** : 신국판/ 391쪽/ 비닐커버  
**가격** : 15,000원. 5월 15일 출간예정

주역을 활용한 점평의 명중으로, 점치는 방법을 설명하고, 각 호마다 개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17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단답형 풀이를 하였다.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